

중동지역 인쇄역사 세계 석학들 모여 집중 토론

최근 전세계적으로 중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지난 9월에 독일 마인츠 요하네스 구텐베르크 대학에서는 2000여명에 이르는 유럽과 북아프리카, 중동 국가, 미국의 학자들이 대거 참여하는 “제1회 국제 중동지역 연구 학술회의”가 열렸다. 중동에 대한 역사를 비롯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연구하고 이해하기 위한 학술회의와 전시회, 이벤트 행사가 개최되었다. 이 학술회의의 일환으로 구텐베르크 박물관에서는 ‘중동의 국가와 언어의 인쇄·출판 역사’에 대한 학술회의와 ‘중동의 언어와 인쇄혁명’이라는 주제로 전시회가 개최되었다.

인쇄·출판에 대한 학술회의는 구텐베르크 박물관에서 9월 9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되어 약 40명의 세계적인 석학들이 연구논문을 발표하였다.

논문은 주로 이슬람 국가들이 필사에서부터 현대 인쇄·출판문 화까지를 총망라하는 내용이었다. 진행 방법은 별도의 사회자가 없이 발표자가 돌아가며 사회를 보고, 한편의 주제 발표가 끝나면 참가자들의 질문을 받고 질문이 없으면 다음 발표로 넘어가는 형식이었다.

전시회는 ‘중동 지역의 언어와 인쇄 혁명’이라는 주제로 구텐베르크 박물관에서 만나는 여러 문화를 소개하였다. 15세기에 구텐베르크는 조판 가능한 활자와 인쇄기를 이용하여 인쇄를 완벽하게 이루어 냈다.

그 후 인쇄술은 유럽에 놀라운 속도로 파급되어 1465년에는 이미 이탈리아 중부와 1473년에는 스페인에서도 인쇄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지중해 남동부 국가들과 중동지역의 국가들은 언어와 관련하여 다른 양상을 보였다.



◆ 중동지역의 초기 목판 인쇄본.



이 지역 국가들은 종파와 국적 그리고 정치적, 사회적, 현실적 여건에 얽매어 인쇄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못했다. 유럽에서는 활자 인쇄술이 성공적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와 반대로 중동 지역에서는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단지 부분적으로만 유럽의 인쇄술이 전파되었다.

중동 지역에 인쇄술이 등장하여 필경 작업이 없어지기까지의 과정은 유럽에 비해 아주 오랫동안 복잡하게 진행되어 왔다.

아주 흥미로운 분야이기는 하지만 중동 지역의 인쇄 역사 연구는 이제 막 시작 단계에 있다. 구텐베르크 박물관은 이러한 상황을 자세히 조명해 보기 위하여 중동지역의 도서와 신문 인쇄의 발전사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두 달에 걸쳐 전시하였다.

전시회와 카탈로그 작업을 위해 2000년 가을부터 중동 지역을 연구하는 학자들과 박물관의 학예 연구원들, 영상 기술 인력들이 공동 작업을 해왔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모두 7개 국어 즉, 히브리어, 아르메니아어, 시리아어,

콥트(고대 이집트 기독교도)어, 아랍어, 터키어, 페르시아어로 된 중동지역의 인쇄와 활자를 전시하였다.

전시는 두 분야로 나누어 구성하였는데, 역사를 다룬 분야는 중동지역 국가들의 시작부터 현재까지의 인쇄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유럽에서 전파된 문화의 전이가 중동 지역 다른 민족에서는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조명하였다.

이번 전시와 전시회 카탈로그는 중동 국가의 학문, 경제, 방송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중, 고등 학생, 대학생, 국내외 관람객, 종교가 다른 사람들,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프로젝트 참가 팀은 학술 분야와 사회 분야간의 뛰어난 전문인들의 긴밀한 연계로 완성되었다. 즉, 중동 지역을 연구하는 학자들과 박물관의 우수한 학예 연구원들, 영상 기술 전문가들이 한 팀을 이루어 작업한 노력의 결실이다.

지금까지 한번도 시도해본 적이 없었던 이러한 팀 작업은 전문가들의 하나된 노력으로 이상적으로 작업을 끝냈다. 독일과 영국, 프랑스, 미국의 대학, 도서관 등 8개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구텐베르크 박물관, 영상 기술 회사에서도 참가하였다.

황정하 <고인쇄박물관학예실장>